

광주매일신문

광주, 조정 더블스컬 17년만에 '金물살'

〈광주체고 박예리·유혜령〉

유도 장성호·강대봉 金·기보배 개인전 銀
전남, 원반던지기 김민 金...배구 승승장구

인천 전국체전 5일째



5일째로 접어든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7년 만에 조정 더블스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광주가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다.

광주

광주선수단은 22일 경기도 용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조정 마지막 날 여고부 더블스컬 종목에서 박예리·유혜령(광주체고)이 8분18초25의 기록으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처음 신설된 더블스컬 종목에서 17년만의 광주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어서 더욱 뜻 깊다.

특히 광주에는 조정 훈련장이 없어 선수들이 매일 상성조정경기장을 왕복하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배가 됐다.

또 만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남일부 무제한급 장성호(유도협회)와, 남일부 -90kg급 강대봉(상무)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힘을 보탤다.

이 밖에도 체조 여고부 개인에

서 한소리(광주체고·3년), 스쿼시 여일부 단체전에서 광주체육고가 대회 2연패, 육상 세단뛰기 남대부 정경진(조선대·3년)이 15.42m로 개인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그러나 금메달이 기대됐던 양궁에서는 기보배(광주시청)가 여일부 결승전에서 진출했지만 이득영(광주시청)을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오다미에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득영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한편 전남은 이날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일부 원반던지기 김민(목포시청)이 금메달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무기종목인 배구에서는 모두 승전보를 올렸다.

이날 인화대 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여고부 준결승에서는 목포여상이 충북제천여고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은메달을 확보한 뒤 23일 수원전선여고(경기)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또 배구 남대부 8강에서는 목포대가 세종충익대를 3대1로 꺾고 23일 경남과학기술대와 4강전에서 맞붙는다.

/인천=이정민기자 genius@kddaily.com



22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체조 여자일부 단체결승에서 강연서(전남)가 평준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 육상 남고부 200m·400m 2관왕 전남체고 이원

"부상 없이 꾸준히 성적을 내고 싶어요"

햄스트링 악몽 이겨내고 완벽한 재기

"지난해 부상을 입고 한동안 운동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금메달을 2개나 따게 되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20, 21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고부 400m,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원(전남체고·3년)은 그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다.

지난해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고부 400m 계주 결승에서 1등으로 질주를 하다가 결승선 20m를 앞두고 부상당해 5위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원은 이때 왼쪽다리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넘어진 와중에도 끝까지 완주했다. 이 당시 400m 1위, 200 2위를 하면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인 상태였지만 부상으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원은 그 후 순천 한국병원에서 두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활에만 전념해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복귀해 조경운동을 시작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재활을 하다가 지난 7월 제42회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400m에서 2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이원은 복귀전이었던 추계대회를 제외하고 이번 체육대회가 부상 후 거의 첫 경기나 다



름없었지만 2관왕을 차지하면서 금빛질주를 한 것이다. 지난 21일 200m 결승경기에서는 부상 여파로 인해 빠른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 초반에 1등과 7-8m정도 떨어졌지만 막판 스퍼트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이원은 지난해 영광에서 열린 제41회 춘계 전국중고종별육상경기대회 때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남고부 육상 400m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원은 "앞으로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셔서 이를 악물고 달린 게 큰 힘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기량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원은 23일 남고부 1600m 계주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인천=이정민기자 genius@kddaily.com

광주여고생들 17년만에 조정서 금빛 물살

〈광주체고 박예리·유혜령〉



유도 장성호 무제한급서 3연패

광주 금 24·은 36·동 52·전남 금 28·은 39·동 35

광주 여고생들이 17년 만에 조정 더블스컬(2인조·Double scull) 종목에서 광주에 금메달을 안겼다. 전남도 쿼드러플 스컬(4인조)과 무타(無舵) 페어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 1개씩 획득했다.

94회 전국 체육대회 열린 5일째인 22일 광주체고 박예리(2년)·유혜령(3년) 조는 경기도 용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더블스컬에서 8분18초25의 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더블 스컬은 2명의 선수가 탑승해 좌우 노 4개를 저어 2km 거리를 경주하는 종목이다.

이번 메달은 1997년(78회 전남 전국체전)

처음 신설된 더블스컬 종목에서 광주선수가 17년 만에 따낸 첫 금메달이다. 특히 광주체고 조정팀 신영금 감독(당시 광주체고 3년)이 같은 대회 무타페어에서 금메달 획득한 지 17년 만에 맞본 고등부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박예리는 싱글스컬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장성실업고와 문향고 조정팀도 더블스컬과 쿼드러플 스컬, 무타페어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남 한종근·정경근(장성실업고) 조는 남고부 더블스컬에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장나영·신선하·고예령·김보미(장성

문향고) 조도 쿼드러플 스컬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향고 신지혜·고예령 조는 여고부 무타페어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유도과 스쿼시, 체조 종목에서도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다.

유도 장성호(광주산업)는 남자일반부 개인전 무제한급 결승에서 홍성현(경남도청)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12년과 2011년에 이은 3연패이다.

광주 강대봉은 개인전 90kg 이하 급에서 금메달을, 이희중은 개인전 81kg 이하 급에서 은메달을, 문길주(이상 국군체육부대)는 개인전 60kg 이하 급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태권도는 광주 김유진(남자 대학부 -74kg급·조선대 4년)과 김제업(남자일반부 -63kg급·한국가스공사) 금메달을 비롯해 은메달 2(김미소 조선대 3년·김지혜 광산구청), 동메달 9개로 선전하고 있다.

육상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정경진(조

선대 3년)은 20일 멀리뛰기 동메달에 이어 22일 세단뛰기에서 금메달(15.42m)을 목에 걸었다. 김민(목포시청) 역시 여자 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 51.74m를 던져 지난해 대회 2위 성적을 설욕하는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 강성권(한국체대 3년)은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에서 2위(1분6초53)로 끝냈다. 올해 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남자일반부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김현재(조선대 2년)가 속도 부문 2위를, 김홍일(·1년)이 난이도 부문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스쿼시 강영진·김가혜·박은옥(광주시체육회) 조는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경남팀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고, 체조 한소리(광주체고 3년)도 여고부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올랐다.

한편 22일(오후 7시 기준) 현재 광주는 금 24, 은 36, 동 52 개, 전남은 금 28, 은 39, 동 35개를 획득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매일

광주체고 조정 17년만 '금' 선사



광주 기보배 양궁 은메달 아쉬움...구기종목 강세

전남 김민 원반던지기 금메달·장성실고 조정 2위

전국체육대회 닷새째인 22일 광주전남은 조정·유도·스쿼시·육상 등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메달사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고부 조정에선 광주체고 선수들이 광주에 17년만에 금메달을 수확했고, 배점이 높은 단체 구기종목서 낭보가 이어졌다.

특히, 금메달 유력종목인 소프트볼에선 광주 명진고가 결승에 진출해 23일 메달식장을 가리게 됐으며 여자 일반농구에선 광주대가 동메달을 확보했다.

하지만, 메달이 유력시 됐던 양궁

등 일부종목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는(오후 5시 기준) 이날까지 금 23·은 35·동 49개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조정 마지막날 더블스컬 종목에서 박예리(광주체고 2)·유혜령(광주체고3)은 8분18초25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메달은 제78회 전국체육대회(1997년)서 더블스컬 종목이 신설된 이후 17년만의 첫 금이다.

아울러, 고등부 무타페어에서 이

선수들을 지도한 신영금 감독의 '금' 획득 이후 16년 만에 첫 고등부 우승 쾌거다.

'금빛 낭보'를 전한 박예리·유혜령은 졸업 후 지역대학으로 진학해 2015광주하계U대회 기대주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날 체전서는 광주체고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체조 여고부 단체전서 은메달, 개인종합은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사격에서 최보람(광주체고 1)이 공기권총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도에서도 무타기 메달이 쏟아졌다.

남자일반부 -90kg급 강대봉(상부)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유도 남자일반부 장성호(광주유도협회)도 우승을 차지했다.

스쿼시 여자일반부(광주시체육회)도 무난히 금메달을 보냈다.

단체 구기종목도 강세다.

전국최강 명진고 소프트볼팀이 은메달을 확보해 서울과 충북 송파팀과 23일 경기를 갖고, 광주대 여자 농구팀은 동메달을 확보했다.

하지만, 금빛 낭보를 기대했던 양

궁의 기보배와 광주에 첫 금을 선사했던 이희중은 개인전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에 그쳤다.

전남은 이날(오후 5시 기준)까지 금 28·은 39·동 35를 획득하고 있다. 육상에서 가장 먼저 금빛 낭보를 전했고, 조정과 유도 등에서 잇따라 메달을 획득했다.

첫 메달은 김민(목포시청)이 육상 여자 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 51.74m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정에선 한종근·정경조(장성실고)조가 남고부 더블스컬서 7분31초35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여고부에선 장나영·신선하·고예령·김보미(문향고)조가 쿼드러플스컬서 7분36초93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씨름서도 최정만(현대코끼리)이 일반부 용장급서 2위에 올랐다.

/인천=고광민 기자

전남도 박주영의 노장 투혼

마라톤 선수 최초 전국 체전에서 3번째 우승 레이스



"우승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뛰고 싶습니다."

전남 박주영(33·한국전력)은 지난 20일 마라톤 플코스에서 2시간44분24초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국 육상선수 최초로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전국체전 플코스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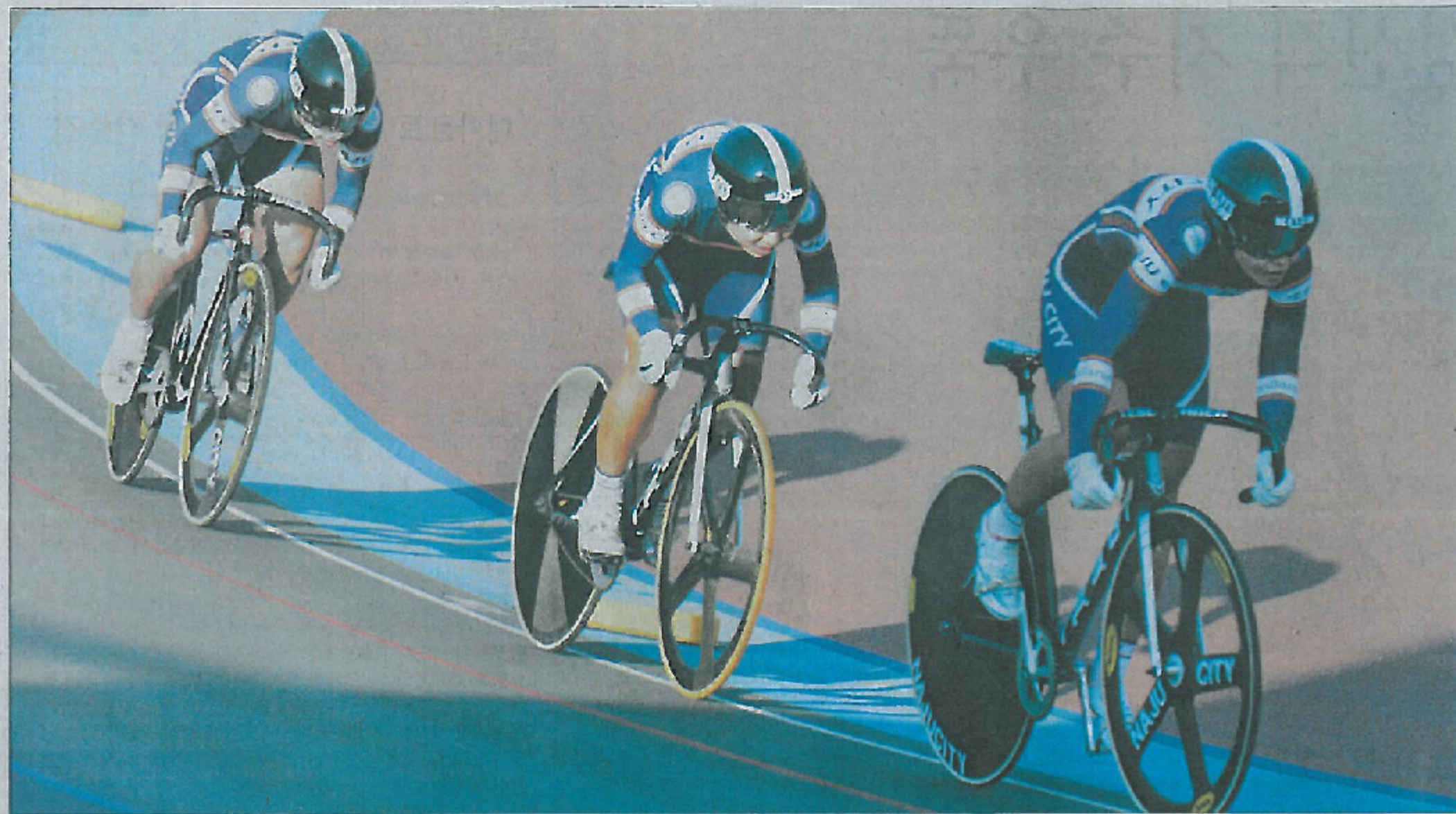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가 고향인 박주영은 도초 서초등학교 함성분교 6학년 때 유영록 교사의 권유로 육상에 입문했다. 초등~고교까지는 주로 중·장거리를 뛰었으나 한국체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대학 3~4학년 때 하프코스를 2연패 했다.

그는 목표 기계공과 1년대부터 대학과 삼성전자, 상무 체육부대를 거쳐 한전으로 소속을 옮긴 현재까지 15차례 이상을 애항심에서 줄곧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왔다. 이날 경기 후 대한전설협회 전남도회는 박주영에게 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주영은 "처음과 마지막 고가도로를 뺀고는 코스 대부분이 평지여서 편하게 뛰었다"며 "내년 상반기에 좋은 기록을 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스피드와 지구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등일보



지난 21일 오후 인천국제벨로드롬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단체 스프린트에 출전한 전남대표 나주시청 소속 황예은·홍현자·이은지선수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임정욱기자

조정 더블스컬서 광주, 17년만에 '金'

전국체전 5일째

체조·유도 등 곳곳서 승전보... 양궁 기보배 아쉬운 은메달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제94회 전국체전이 중반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유도와 사격 등에서 메달을 보이며 5일째 승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체육교가 조종 종목에서 17년만에 광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안기는 이변을 연출했다.

대회 5일째인 22일(오후 4시 기준) 광주는 금23·은33·동49개, 전남은 금28·은30·동35개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조정 마지막 날 더블스컬 종목에서 바에리(광주

지) 2년, 유예령(광주체육교 3년)이 8년18초2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금메달은 더블스컬 종목이 지난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신정원 이래 광주사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다.

그동안 고등부 조정에서 광주에 마지각으로 금메달을 안겼던 주안공은 현 광주체육교 신임금 감독이었다.

그는 지난 1998년 79회 전국체전 조정 무타페이 고등부에서 정상에 올랐었다.

이번에 광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안

겨준 바에리·유예령은 졸업 후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2016광주세계 U20 대회 기대주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체전에서는 광주체육교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체조 여고부에서 광주체육교는 단체전 은메달과 개인종합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사격에서 최보란(광주체육교 1년)이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도에서도 무타페이 메달이 쏟아졌다. 유도 남자일반부 -90kg급과 무제한급에서 강대봉(장우)과 장성호

(광주유도협회)가 각각 광주에 금을 보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스키에서 여자일반부(광주시체육회)에서도 무난히 금메달을 추가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기보배의 금메달 소식은 이날도 무산됐다. 기보배는 양궁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광주에 첫 금을 선사했던 여자 양궁의 이트영도 동메달에 머물렀다.

단체전에서는 전국 최강 명진고 소프트볼팀이 무난히 전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확보했고, 농구 여자일반부에서 광주대도 동메달을 확보했다.

반부에서 광주대도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은 이날 육상에서 가장 먼저 금빛 남보를 전했다.

첫 금메달은 주인공은 김민(목포시청)이었다. 그는 육상 여자 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 51.74m를 기록하며 정상에 우뚝 섰다.

조정에서는 한종근·정경조(장성실고)조가 남고부 더블스컬에서 7분31초36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장나영·신선하·고예경·김보미(분향고)조는 여고부 웨더리플스컬에서 7분36초38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씨름에서는 최정만(현대고)이 이안반부 용정급서 2위에 올랐다.

박지훈기자

전남일보

전국체전 부상 딛고 투혼 2편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8일부터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부상을 딛고 투혼을 발휘해 값진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화제다. 역도의 이만우(완도수산고 3년)과 육상의 이원(전남체고 3년)이 그 주인공. 이들은 부상으로 힘든 재활 시기를 거치면서 이번 전국체전 2관왕에 올랐다.

"200m·400m 金...1600m 제주도 도전장"

이원(육상·전남체고)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이를 악물고 두었어. 부모님께 금메달을 안겨 주게 돼 너무 기쁩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고부 200m·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원(전남체고 3년·사진)은 지난해 큰 아픔을 겪었다. 이원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고등부 400m 계주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1위로 브라질이 결승선 20m를 앞두고 왼쪽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바람에 넘어졌다. 이 부상 이후 그는 2관왕을 꿈꾸던 1800m 제주도 불참하게 돼 아쉽게도 3관

왕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다.

초등 6년째 이원을 발굴해 지도해 온 문봉기 전남체고 감독은 "이원이 랑스트림 부상으로 넘어졌음에도 나머지 20m를 완주해서 5위로 들어온 뒤 악물며 하면서 올고 있었다. 다음날 1600m 계주를 뛰겠다고 해서 겨우 앞섰다. 당시 이원의 선수생활이 끝날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원은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순천 한국병원으로 후송됐고, 힘든 재활치료에 매달려야만 했다. 병원에 있을

때는 혼자 걷기조차 힘들었다. 두달간 물리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부상 의 여파는 가시지 않았고, 운동을 못 한다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다. 퇴원 후 8개월 동안 문 감독의 지도 아래 학교 수영장에서 걷기를 통해 랑스트림 재활 치료에 전념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스피드를 높여갔다. 지난 7월에는 올해 처음 참가한 추계 중·고 육상대회 400m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전국체전을 향한 실전 감각을 익혔다.

미세한 통증이 남아있어 제대로 된 훈련을 못했지만 이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부모님께 금메달을 선물할 생



각으로 이를 악물고 달려 200m와 400m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특히 200m는 출발 전 봉준으로 스타트를 늦게 해 1위로 달려온 이정태(대전)보다 7m 뒤처진 상황에서 결승선 2m를 앞두고 추월해 21초54의 기록으로 우승한 데다 개인신기록까지 달성해 파란 금메달이어서 값졌다.

이원은 22일 열린 400m 계주에서 6위에 그쳤지만 3관왕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23일 1600m 계주에서 3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이원은 "재활하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두 총목에서 1등을 해 만족한다"면서 "앞으로 꼭 금메달을 따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고 200m·4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고부 밝혔다.

"2관왕·대회 신기록...태극마크 달고 싶어요"

이만우(역도·완도수산고)

"올해 처음으로 부상을 당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번 체전에서 2관왕을 한 데다 대회 신기록까지 세워 매우 기쁘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고부 69kg급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이만우(완도수산고 3년)는 물줄 큰 아픔을 겪었다.

재학 중인 완도수산고가 올해 마이스터고로 바뀌면서 역도부가 해체되면서 후배들은 올초 역도부가 창단된 완도고로 모두 전학갔다.

하지만 3학년인 그는 전학을 가지 못하고 홀로 외로움 훈련을 해야만 했

을 초 역도부 해체로 훈련 홀로 부상 딛고 체전 출전 "대회·올림픽 꼭 참가"



화 운동을 실시했다.

의심상당하며 꾸준한 재활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든 이만우는 이번 체전에서 육상 신기록과 함께 전남선수 중 첫 2관왕을 달성했다.

그는 지난 19일 인천시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남고부 69kg급 육상과 함께 1위에 올라 2관왕을 차지했고, 69kg급 인상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특히 인상 종목에서는 171kg을 들어 올리며 지난 2002년 제33회 전국체전 당시 사자현(강원)이 세웠던 종전 기록(170kg)을 10년 만에 갈아 치웠다.

이만우는 "1차 시기 180kg, 2차 161kg을 들어올려 2차에 금메달을 확

정한 뒤에 3차 시점에서 '신기록 도전 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171kg을 선택했다"며 "연습 때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무게가 2차 시기에 금메달을 확정지어서 마음이 편했는지 기분이 좋아졌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만우의 다음 목표는 내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다.

그는 "인상에서 역기를 들어올릴 때 잡아채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자서 교정 훈련을 통해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 열리는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내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무대에 나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최현환 기자 chun@nmb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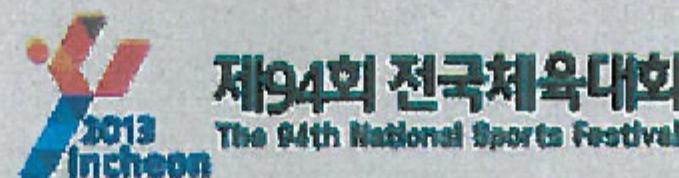
남도일보



22일 오전 인천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고등부 3,000m달리기 경주 2소 결기중 각 시·도대표선수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인천/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광주체고 조정, 더블스킬 17년만에 첫 금



김민(목포시청) 전국체전 女원반던지기서 전남에 금 선사

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성남) 박예리(2년), 유혜림(3년)이 조정 더블스킬 종목서 17년만에 첫 금메달을 광주광역시에서 안았다.

박예리, 유혜림은 22일 경기도 용인조양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조정 마지막날 여자 고등부(이하 여고부) 더블스킬 종목서 8분18초2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금메달은 지난 1997년 제78회 전국체전에서 처음 신원환, 조정 더블스킬 종목 17년만의 광주시 첫 금메달이다.

김종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더블스킬 종목 입상팀을 시상하며 "조정 훈련장이 광주에 없어 우리 선수들이 매일 전남 장

성조정경기장을 왕복하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더가는 종목이었다"며 "어려운 훈련여건 속에서 열심히 훈련해 최고의 성과를 얻어 시상식에서 직접 우리 선수들에게 메달을 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선수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회 5일째인 22일 광주·전남 선수단의 금빛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금메달 6개(이하 17시 집계상황)와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고 전남도는 금메달 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를 기록했다.

광주는 남자일반부(이하 남일반) 유도 무제한급 장성호(광주선남)가 금빛 소식을 먼저 알렸고 여고부 조정 더블스킬 광주체고, 여자일반부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표”

전남 박주영, 마라톤 첫 3회 우승

전남대표의 박주영(한국전력·사진)이 전국체육대회 시상 처음으로 마라톤에서 3회 우승의 금자발을 달성했다.



박주영은 지난 20일 인천시 일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마라톤서 2시간24분24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2008년 89회 전국체전 마라톤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박주영은 2010년 91회와 2013년 94회

대회 등 3회 우승을 차지했다. “국가대표로 선발돼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박주영은 “2년 만에 전남다크를 달고 제천 마라톤에서 우승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200m·400m 한국신기록 깨고 싶어”

전남체고 이원, 부상당한 육상 2관왕

전남체육고등학교의 이원(3년·사진)이 부상을 당고 제94회 전국체육대회서 2관왕에 올랐다.



이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주종목인 남자육상 400m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21일 2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원은 “고등학교 마지막 시합이고 부부님이 기대를

많이해 이 악물고 최선을 다했다”며 “400m 우승 후 200m에서 문봉기 감독님이 스타트를 무리하게 하지말라고 해 출발이 늦었다. 코너를 돈 후 직선주요에서 막판 스피드로 2등과 0.02초차 앞서 들어와 너무나 짜릿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상 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는데 부부님을 기쁘게 해드려 너무나 기쁘다”는 이원은 “대학교에서 몸을 잘 만들어 200m와 400m의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싶다”고 소망했다.

인천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